

안선민 부연구위원 sunmin.an@krivet.re.kr
이수경 선임연구위원 solee@krivet.re.kr
정란 부연구위원 chungran@krivet.re.kr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소고

신(新) 취약계층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등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 본 연구는 사업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 요소, 청년기본법의 의의,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 이슈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업의 성과 향상과 더불어, 청년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기대함.

01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취약계층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최근 경제발전 속도가 둔화되면서, 청년은 노동시장의 진입(취업)과 성과(임금, 지위 등) 등이 이전 세대에 비해 낮은 신(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은 노동시장의 진입 이전에 직업 및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주저하는 모습이 확인됨
 - 2023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들이 직업 및 경력개발계획이 불분명하거나 확신이 없고, 뚜렷한 계획이 있어도 실행 계획을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기회가 드문 상황 등으로 인해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됨(최광성 외, 2023)
- 이 밖에도 청년은 직장보다 직무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으며, 채용 트렌드 또한 직무 중심의 경력 및 수시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 이에 따라 직무 경험이 없는 청년은 노동시장의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첫 일자리'가 주는 강한 낙인효과(정도범, 2021)는 선부른 노동시장의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

청년 대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도출 필요

-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글은 이수경·김봄이·안선민·정란·박연정·박윤희(2024),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췌, 재정리한 일부 내용에 별도의 분석을 추가하여 작성함

02 「청년기본법」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의 의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일자리’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

-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이상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자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 관한 보편적, 포괄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천명함
-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와 함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동법 제2조제1항)
- 이를 위해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의 참여 촉진을 지향하며,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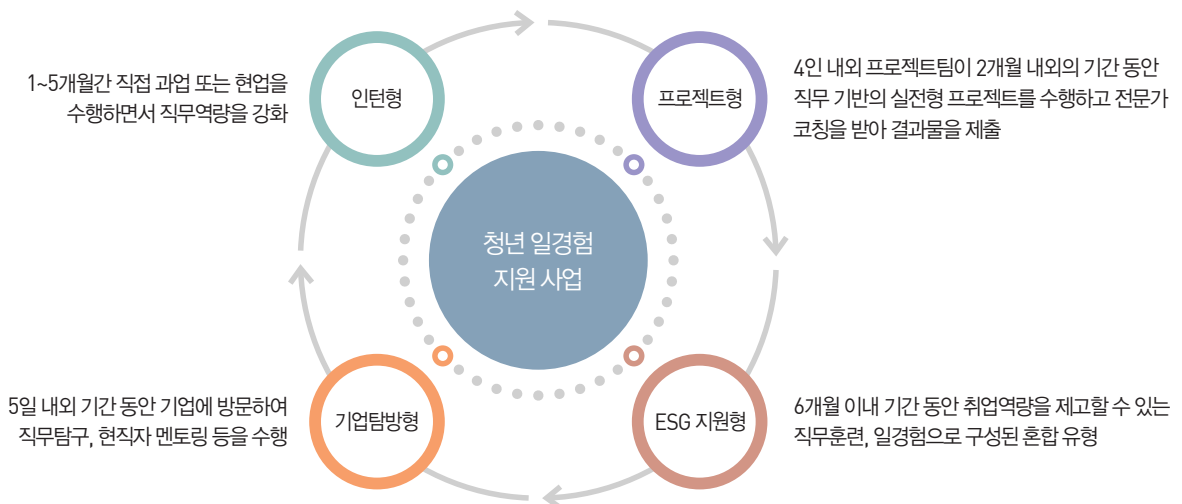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은 단기적 취업 성과를 지향하던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성장을 지원

-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이 대부분 단기적인 실업 대책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김문길, 2022), 청년 정책은 청년이 노동시장 이행에 앞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경력개발계획 설계와 계획에 대한 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청년정책은 단기간의 취업 성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진을 지원하는 장기적 목적을 가짐

03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성격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

-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본 사업은 청년의 단기적인 취업 성과보다는 청년에게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한 직무·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확신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궁극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립심을 함양한 후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하고, 청년이 원하는 기업에 매칭을 지원하며, 사전직무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도록 돕는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성격을 가지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기업탐방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그림 1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유형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기존의 현장실습과 인턴십의 단점을 보완

- 본 사업은 청년의 소속과 배경에 의한 제약 없이 원하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기에 개설되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표 1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특성

	현장실습	인턴십	청년 일경험
정규교육과의 연계	○	X	X
프로그램 주도	학교	기업	기업
취업과의 연계	X	○	X
참여 대상	학생	선발된 지원자	참여 희망 청년
운영 시기	학사 일정에 따름	기업 일정에 따름	청년 일정에 유동적

출처: 노호창(2012), 박영기·윤지환(2006), 유지원·송윤희(2017), 이종구·김병기(2008), 최수정 외(2012), 홍종윤·이준구(2018)를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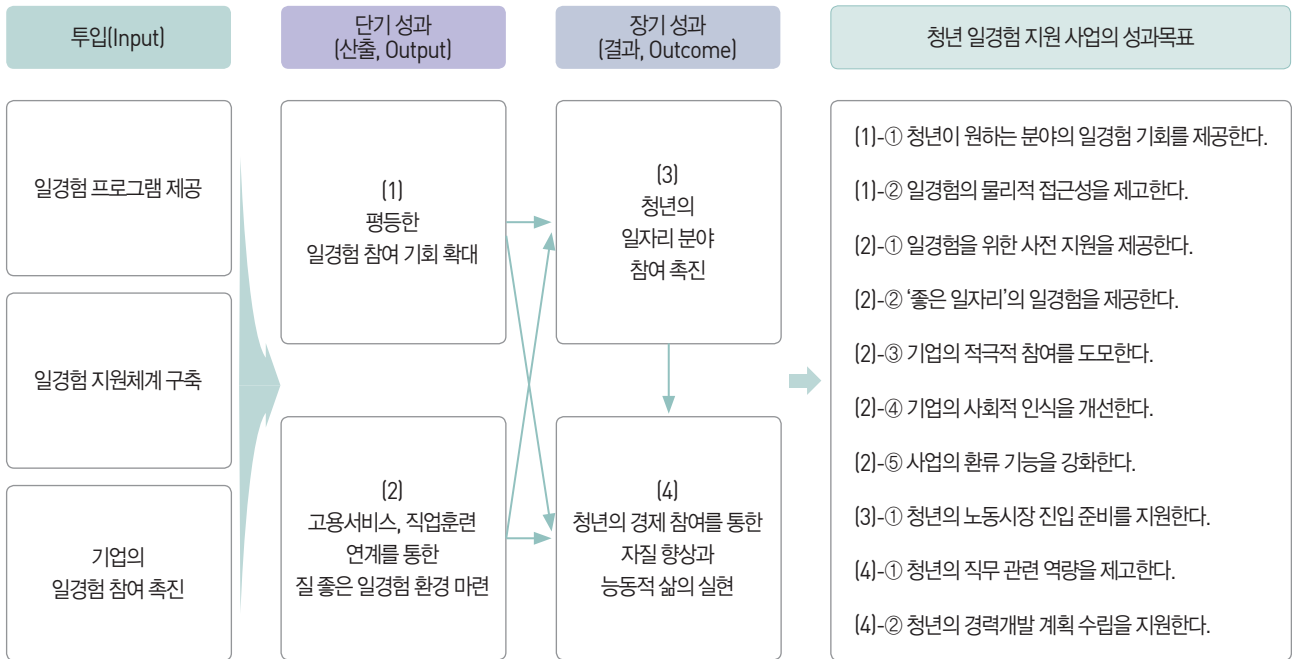
04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안) 도출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통한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달성’을 목표로 함

- 투입 영역은 OECD(2013)에서 제시하는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의 성공 요인’ 3가지를 고려해 도출함
 - ‘적절한 일경험 제공(청년이 공식교육을 마치기 전에 적절한 일경험을 제공)’은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체화함
 - ‘질적인 직업 지도(직업과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이 더 나은 직업 선택을 하도록 지원)’는 ‘일경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
 - ‘사회적 파트너들의 책무와 헌신(기업 등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구체적인 직종의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은 ‘기업의 일경험 참여 촉진’으로 구체화함
- 산출(단기 성과)과 결과(장기 성과) 영역은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제2항)을 장·단기로 구분한 후 고용 정책이 달성 가능한 범위로 축소함

| 표 2 | 청년기본법에 기반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산출, 결과 영역

청년기본법 기본이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1)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평등한 일경험 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질 좋은 일경험 환경 마련
(3)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청년의 일자리 분야 참여 촉진
(4)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경제 참여를 통한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 그림 2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안)

05 시사점

-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도출된 성과목표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청년 고용에 관한 사업을 장기적 시계를 추구하도록 전환하여, 정부 지원이 단기간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만이 아닌 청년의 삶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도록 기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문길(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74-95
- 노호창(2012). 인턴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33:197-245
- 박영기·윤지환(2006).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과 취업준비와의 관계: 4년제 대학교 관광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4년제 대학교 관광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8(1), 237-250
- 유지원·송윤희(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실무역량,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의 잠재평균 비교. 「진로교육연구」, 30(1):183-202
- 이종구·김병기(2008). 한국기업의 인턴사원제도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사학」, 23(3):261-298
- 정도범(2021).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에서 첫 직장 선택의 중요성. 「노동정책연구」, 21(1):165-195
- 최광성·권율수·김나라·류지영·문찬주·정지은·주희정(2023). 「2023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2.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수정 외(2012). 「일 기반 학습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제도 및 법령 정비 방안 연구(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경영자총협회(2024).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 홍중윤·이준구(2018).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8(3), 37-73
- OECD(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